여야 예산안 '총성 없는 전쟁'

국회 예결위 심사 착수

'칼질'-'원안' 대결 불가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산특위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 여야 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총 283조8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나선 야당과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감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안'에 대한 대폭 삭감 없이는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 기일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면 감세와 세출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의 대폭 손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민주당은 14조~15조원 규모의 정부 감세안 가운데 종부세 1조5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양도세 4천억원, 소득세 7천억원 등 '부자감세' 6조원을 철회토록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 등 7조3천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에 6조3천억원의 세출을 신설, 세출 1조원을 순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도 감세 폭 축소와 세출예산 감액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당은 정부·여당의 감세규모를 2조~3조원 축소, 12조원 선에서 묶어놓고 세출예산은 과다 편성됐거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9조4천억원 삭감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 중소기업이나 영세민 등을 위한 사업에 3조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전체적으로 6조원의 세출 감액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SOC 예산 대부분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세안도 경기 침체 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도 이날 "막연히 사회간접자본에서 늘어난 것 중 절반을 깎자고 하면 정치구호성 비슷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어떤 예산은 비효율적이니까 어떻게 깎아야 한다고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해외 순방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내 예산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내비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종부세' 존폐 논란

정부 '장기적 폐지' 맞서 존치론자 '조세 형평성 부합' 반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이 존폐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종부세 자체가 이념적인 데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존치론자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서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세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도입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경기 안정이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값 앙등으로 귀결되면서 중산층만 피해를 봤다"고 종부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가리는 것이지, 이 세제가 정당하냐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맞게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종부세 도입 자체가 상당히 이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해왔다"면서 "아주 나쁜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아가 "종부세는 결국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높게 책정해 재산세 속에 누진적인 요소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남경필 의원은 "종부세가 제도상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아직까지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서 종부세 존치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헌재 판결로 이미 종부세의 80~90%가 불능화된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1주택자 장기 보유 기준의 경우 10년 보유 3년 거주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 개혁파로 분류되는 '민본21' 소속 황영철 의원도 "종부세를 통해 부당하게 받았던 부분은 헌재 판결대로 해주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서민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종부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주거 목적과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자는 것이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영남 공략

정세균 대표, 경북 구미서 최고위원회 소집

민주당이 19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기치로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10%대로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대구와 구미를 각각 방문해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것.

정세균 대표와 송영길, 장상, 윤덕홍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경북 구미를 방문,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방침을 성토했다.

정 대표는 "이 정권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며 "국가 균형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권의 태도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라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많이 찍어줬는데 한나라당이 경북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전국 도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40%가 포항으로 간다"며 "실세 중의 실세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우리 동네에는 별 불만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고위 직후 당 지도부는 구미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방 소재 중소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이어 대구로 이동, 대구시당에서 지역위원장들과 만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지역 민심을 살폈다. /연합뉴스

"투자·근로 장려세 범위 대폭 확대"

강운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 실물경제와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강운태 의원(무소속·광주 남구·사진)이 기업 투자와 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강운태 의원은 투자장려세와 근로장려세를 확대 시행하고 고용장려세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중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투자장려세의 범위를 확대, 기업이 사업용 자산이나 신기술, 연구인력 등에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투자 금액의 10~2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한편 기존의 근로소득장려세 대상도 확대, 사업소득자와 농업소득자를 포함시켰다. 특히, 강 의원은 각 업종별로 표준 인력 이상 인력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 인건비의 25~50%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 활성화와 인력 고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국내 세제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슈퍼드림팀의 합격산화 이론홀수반
합격생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올 스타팀 7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따라가라! =
전국 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개강▸12월 1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최단기 정수업그레이드 필수과정 한짱단과반
주부/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9급 야간특설반
교육행정/ 농업직/ 기술직/ 사회복지/ 출관직

=지금도 지혜로운 많은 수험생들은 47년 전통의 무등을 찾고 있다 (청강환영)=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교세관법검철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건호지방술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안내
◉시험일자 :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 시행
◉채용인원 : 국가직 3,200명 모집-지방직 예년수준
※공무원시험에 내년 1월1일이후 부터 응시상한 연령폐지
개강 12월1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 90만원(교재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國)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www.mdgosi.co.kr
☎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_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개강일정 마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첨단점 ☎ 971-0002 (구)베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月 1日(주,야) 처음시작하신분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국비지원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축 목포점 개원 12月 1日 개강예정 목포하당지구 대성학원 건물 3층 061)277-8111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529-8111 ▸학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름빌딩 4층